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45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음력 8월 8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거센 파도 밀려드는 해안가 13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앞바다에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송악산 보호위해 국립공원 지정 제외?

환경부 "제주도 요청 따라 뺀 것… 공청회도 연기"
道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역 진행 중 지정 부적절"

난개발로부터 송악산을 보호하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한 제주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송악산을 빼달라고 환경부에 스스로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환경부가 이달 말 개최하려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설명회·공청회도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연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송악산을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뺀 이유는 제주도가 먼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송악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방정부 스스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지만 그동안 주민 반발에 부딪혀 후퇴를 거듭했다.

환경부는 2018년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우도·추자면, 송악산과 곶자왈, 해양 등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총 610㎢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 반발이 지속되자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지역 등을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권고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정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303㎢로 축소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은 올해 다시 축소됐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해 최근 송악산(58만여㎡) 등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면적은 303㎢에서 289㎢로 재차 축소됐다.

환경부는 이렇게 두 차례 손질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을 오는 31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또다시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개최를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에 대해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히 공청회를 열면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었고, 주민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또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악산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송악선언에 따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런 해명에도 송악산을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립공원 지정 방안보다 지방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가 10년 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악산 전체 면적의 약 45%인 26만여㎡가 사유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든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든 반드시 사유지는 확보해야 한다. 도립공원 지정 시에는 제주도가 사유지 매입비용 전액을, 국가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시엔 30%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국립공원 지정 시에는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주는 균특회계, 즉 전액 국비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먼저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 이후의 행태들을 보면 (지정 확대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송악산의 경우 지역 민원을 고려했을 때 국립공원 지정으로 논란이 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편입해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는데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니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송악산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국가 재원도 지원 받아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제외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최근 60년간 겨울이 사라졌다

기상청, 24절기·계절길이 변화 분석 자료집 발간
여름은 15일 길어진 반면 겨울은 14일이나 짧아져

제주도는 지난 60년(1961~2020)간 기상학적 '겨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6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주도의 24절기·계절길이를 분석한 '제주도 24절기·계절길이 변화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60년 중 전반 30년(1961~1990)과 후반 30년(1991~2020)을 비교 분석한 결과 봄 시작일은 2월 3일에서 1월 27일로 7일가량 앞당겨졌고, 여름 시작일은 6월 7일에서 5월 30일로 8일 빨라졌다. 가을 시작일은 10월 5일에서 10월 12일로 7일 늦어졌다. 겨울 시작일은 일 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간 뒤 10일 동안 지속될 때 그 첫날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사계절 중 겨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계절 길이는 봄은 124일에서 123일로 1일 짧아졌고, 여름은 120일에서 135일로 15일 길어졌다. 가을은 121일에서 107일로 14일 짧아졌다.

백로(양력 9월 8일경)를 제외한 모든 절기에서 기온 상승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겨울절기에서 가장 뚜렷했다. 입동(양력 11월 7일경)의 최저기온은 60년 동안 6.1℃ 상승했으며,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양력 1월 20일경)의 최저기온은 4.4℃ 상승했다. 강수량은 처서(양력 8월 23일경, 25.2㎜)에 가장 많았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희룡 전 제주지사

"JDC, 제주도 산하 이양 공약으로 추진"

"쓰레기매립 제로섬 등 제주관련 공약 구상 중"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대선 제주 관련 공약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원 전 지사는 이날 한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전 지사는 면세자유지역화, 탄소제로섬, 스마트아일랜드, 쓰레기 매립 제로섬, 기후변화위기 대응 선도도시, 저탄소 친환경도시 제주 육성 등을 제주 관련 공약으로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지사직 중도 사퇴에 대해 "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윤리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한번 제주도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대표해서 출마한 만큼 더 큰 제주, 국민 통합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차기 도지사 선거 불출마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제주는 새로운 리더십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 전 지사는 "9월 중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면 국민들의 질문도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로 바뀔 것"이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보수정통성과 중도확장성, 어떤 네거티브 공격도 무력화시킬 인생 이력, 풍부한 행정경험과 고도의 정치력을 모두 갖춘 후보 원희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13일 17시 기준 누적 확진 **2734**